불교계, 거제 수해 현장에 '자비 손길'

더프라미스, 8월 18~21일 점검
복지재단, 둔덕면에 키트 200개
나누며하나되기, 3000만원 물품

이현희 기자 hyeonhae@hyunbul.com



불교계 국제구호 NGO 더프라미스가 8월 19일 거제 둔덕면 하둔리 마을의 피해 상황을 조사하는 모습. 사진 제공=더프라미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8월 20일 1000만원 상당의 긴급구호 키트 200개를 둔덕면사무소에 전달했다. 사진 제공=조계종사회복지재단

광복절 연휴 기간 남해안을 덮친 집중호우로 경남 거제에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불교계가 수해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현장 점검과 구호 활동에 나섰다.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경남 거제와 통영에 극한 호우가 이어지며 주택·도로 침수와 산사태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 기간 거제에는 954.8㎜, 통영에는 763㎜로 시간당 100㎜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며 이례적인 누적강수량을 기록했다. 특히 거제 옥포동에서는 산사태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불교계 국제구호 NGO 더프라미스(이사장 묘장 스님)는 집중호우 직후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거제 피해 현장에 재난복지팀을 파견했다. 재난복지팀은 현재 피해 상황과 현장 복구 상황을 파악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

더프라미스 현장 조사에 따르면 장목면에서는 주택 다수가 침수하고, 둔덕면에서는 도로 아스팔트가 들뜨고 장애물이 많아 긴급 차량 진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거제면에서는 만조와 폭우가 겹치면서 정전·침수 피해가 이어졌다. 토사 유출 등으로 전통시장과 상가에서는 악취가 심해 주민들의 정상적인 이용도 어려운 상황이다.

재난복지팀은 조속한 피해 수습을 위해 피해 지역 학교 등에 마련된 임시거주시설과 대피소를 방문하고, 거제시자원봉사센터·노인통합지원센터 등 피해 복구에 나선 기관들을 차례로 찾아 필요한 물품 목록을 전달받고 현장 지원 계획을 공유했다.

무엇보다 지자체와 각 구호 단체의 도움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구호 활동을 이어나갔다. 8월 19일 둔덕면 하덕리에는 침수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청소도구를 비롯해 음료·간식 등의 물품을 지원하고, 긴급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식료품 키트를 구성해 거제노인통합지원센터에 전달했다.

묘장 스님은 "경북 안동과 의성에 이어 경남 거제와 통영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전국 곳곳에서 반복되는 재난 현장을 놓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직접 찾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도륜 스님, 이하 재단)도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거제 피해 현장에 긴급구호단을 파견해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살폈다. 거제 인근 거창 지역의 재단 산하시설인 거창군삶의쉼터 회원들도 현장 피해 조사에 함께했다.

재단은 8월 20일 피해 규모가 큰 둔덕면 일대에 1000만원 상당의 긴급구호 키트 200개를 둔덕면사무소에 전달했다. 물품은 세면도구, 물티슈, 슬리퍼, 양말 등 생활용품으로 구성됐다. 재단 후원단체인 매일유업도 둔덕면 주민들을 위한 우유 2016개(24입 84박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륜 스님은 "재단은 재난·재해 발생 시 현장을 신속하게 확인해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긴급 구호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재단은 거제·통영지역의 수해 복구와 수해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긴급 모금(후원계좌: 하나은행 271-910006-64104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을 8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천태종 NGO 나누며하나되기(이사장 진철 스님)는 8월 25일 거제시청에서 '거제시 수해민 긴급구호 물품 전달식'을 열고 3000만원 상당의 건강·방역·생활물품을 지원했다.

기자칼럼

불교음악, 더 자주 만날 수 있길

미술관에서 불교음악이 울려 퍼진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리움미술관에서 한국전통음악 프로젝트 'The Authority'의 일환으로 8월 29일 조계종 어산어장 동희 스님의 공연이, 'The Signature' 시리즈에서는 9월 20일 정각 스님의 범패승 전통음악 공연이 열린다. 사찰이 아닌 미술관에서 불교 전통음악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반갑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이 든다. 불교음악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미술관에 마련됐다는 사실 자체가 특별한 소식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는 일상에서 불교음악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

클래식 음악은 공연장뿐 아니라 방송과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일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다. 공연을 찾아가고 해설을 듣고 악기를 직접 배우기도 한다. 자주 듣고 경험하다 보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던 음악도 어느새 익숙해진다.

불교음악은 조금 다르다. 범패를 비롯해 법고와 바라 등 전통 불교음악은 사찰의 의례와 수행이라는 특별한 공간과 맥락 속에서 전승돼 왔다. 사찰을 자주 찾지 않는 사람이라면 직접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용어와 생소한 형식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들어야 할지조차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다.

사찰에서 스님들이 법고를 두드리고 바라를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 웅장하면서도 장엄한 울림이 마음을 붙잡는다. 오랜 세월 이어져 온 법음이 의례의 순간에만 울리고 사찰 안에 머물러 있는 현실이 더욱 아쉽다.

이제 불교음악도 조금 더 세상 밖으로 나오길 바란다. 사찰을 넘어 공연장과 미술관, 문화공간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어야 한다. 불교행사가 있을 때만 듣는 음악이 아니라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찾아가 듣고 경험할 수 있는 문화가 되어야 한다.

처음에는 낯선 음악에 대한 호기심으로 공연장을 찾을 수 있다. 한 번 듣고 또 듣다 보면 낯섦은 익숙함으로 바뀐다. '이 음악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불교문화와 사찰을 알아가는 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번 리움미술관 공연 이후 불교음악을 접할 기회가 꾸준히 늘어났으면 한다.

언젠가는 불교음악을 공연장에서 만나는 일이 더 이상 특별한 소식이 아니게 되기를 기대한다.



박지운 편집국 기자

'불교영화제' 후반기 여정 시작

2026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
9월 현덕사·관음사·조계사서



7월 31일 구례 화엄사에서 열린 '2026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 모습.

전국 산사를 무대로 불교영화와 사찰문화가 어우러지는 영화제가 후반기 여정을 시작한다. 여행과 공연, 캠핑, 창작 활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과 함께 낙산사·현덕사·관음사·조계사에서 영화제가 펼쳐진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이사장 정원주·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이 주최·주관하는 '2026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이하 OIBFF)'가 7월 평창 월정사에서 시작한 전반기 일정을 마치고, 후반기에도 전국 주요 사찰을 찾아 상영을 이어간다.

첫 후반기 행사는 8월 22일 양양 낙산사(주지 일념 스님)에서 영화 상영과 함께 '파도 위의 서핑 템플스테이'를 주제로 열렸다. 동해에서 서핑을 즐긴 뒤 산사에서 하루를 이어가는 프로그램으로, 저녁에는 가수 하림의 라이브 공연과 영화 '더 컵(The Cup)' 상영이 진행됐다.

9월 5일에는 강릉 현덕사(주지 현종 스님)에서 1박 2일 '금강송 솔숲 캠핑 & 스테이'가 펼쳐진다. 가족캠핑 6팀과 솔로캠핑 8팀,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맛있는 절밥과 사찰의 커피를 즐긴 뒤 오후 7시 자갈마당에서 영화 '절해고도'를 관람한다.

제주 관음사(주지 허운 스님)에서는 9월 13일 어린이들이 산사를 직접 걷고 그곳에 담긴 이야기를 찾아 하나의 연극으로 만드는 '관음사 이야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아이들은 일주문과 평화대불, 미륵대불, 관음굴 등 관음사의 여러 공간에서 이야기를 발견하고, 이를 스토리와 장면으로 발전시켜 직접 무대에 올린다. 저녁에는 별빛 아래 모기장을 펼쳐놓고 영화 '더 컵(The Cup)'을 감상하는 '모기장 영화상영'이 이어진다. 영화제측에서는 아이들이 사찰을 탐색하고 이야기를 만들고 공연하는 전 과정을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으로 담을 예정이다.

영화제 후반부 마지막 무대는 9월 18일 서울 조계사(주지 담화 스님)가 장식한다. 대웅전 마당에서는 개막 공연과 영화 '절해고도' 상영이 진행된다. 상영 후에는 감독과 배우들이 참여하는 GV(관객과의 대화)가 예정돼 있다. 조계사 전통마당에서는 불교박람회에서 큰 호응을 얻었던 다양한 불교 굿즈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팝업도 열린다. 박지운 기자



복날, 사찰음식으로 '생명 · 환경' 살피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 스님)는 8월 14일 서울 불교환경연대 사무실에서 초복부터 한 달간 진행해 온 '2026 복날채식캠페인'의 마지막 활동으로 스님과 함께하는 사찰음식 체험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하남 상불사 회주 동효 스님의 지도로 직접 음식을 만들고 함께 공양하며 생명존중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이현희 기자

불교여성硏 '번뇌 해부서 해독으로' 강좌

8월 21일~10월 2일, 매주 금요일
불교여성개발원서 총 6회 진행

불교여성개발원 산하 불교여성연구소(소장 김선숙)가 뇌과학과 철학을 통해 현대인의 번뇌를 이해하고 불교의 지혜를 삶에 적용하는 특별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정대련) 산하 사단법인 지혜로운여성(이사장 이기향)이 주최하고 불교여성연구소가 주관하는 이번 강의는 8월 21일부터 10월 2일까지 매주 금요일(25일 추석연휴 제외) 3시간씩 서울 불교여성개발원 2층에서 6주간 진행된다.

'번뇌의 해부에서 해독으로' 프로젝트는 불교를 신앙이나 이론이 아닌, 현대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천의 지혜로 되살리고자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불교 교학·명상·뇌과학·철학을 연결한 융합 교육과 강의 실천을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젝트를 통해 배움을 습득한다. 체크리스트와 실천 일지를 활용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 행동 패턴을 관찰하며 스스로 번뇌를 이해하고 전환하는 힘을 기르게 된다.

강의는 철학과 불교, 뇌과학, 명상 등을 아우르는 전문가들이 맡는다.

8월 21일 이정우 소운서원 교수가 '삶의 기예로서의 철학'을 강연하며 강의의 첫 문을 열었다. 이어 △8월 28일, 유식불교와 마음(박재용 동국대 교수) △9월 4일, 마음공간의 계층구조와 깨달음의 길 : 무명에서 지혜로, 붓다의 통찰과 뇌과학(문일수 동국대 교수) △9월 11일, 12연기와 위빠사나(한국명상원 묘원법사) △9월 18일, 부처님의 번뇌 다스리는 법 활용하기에(백경임 동국대 교수) △10월 2일, 아비담마의 인식과정과 업의 형성, 예측하는 뇌와 감정의 과학 : 선과 위빠사나를 통한 분노·중독의 해독(김선숙 불교여성연구소장) 등이 마련된다. 02-722-2101 박지운 기자

'나는 절로', 공주서 청춘 만남 장 연다

9월 19~20일, 한국문화연수원서
8월 31일 오전 10시까지 접수

청춘남녀 만남 프로그램 '나는 절로'가 이번에는 수도권 청춘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도륜 스님, 이하 재단)은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공주 한국문화연구원에서 진행되는 '나는 절로, 한국문화연수원' 참가자를 모집한다.

종교에 관계없이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과 연관 있는 2030세대 미혼남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남녀 각 10명씩 총 20명을 선발한다. 참가 신청은 8월 31일 오전 10시까지 재단 홈페이지(www.jabinanum.or.kr)를 참조해 구글폼으로 접수하면 된다.

저출생 문제 대응 일환으로 기획된 '나는 절로'는 매회 대중의 높은 관심을 이끌며 2030세대의 대표적인 만남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재단에 따르면 지금까지 '나는 절로'를 통해 5쌍의 커플이 결혼했으며, 현재 7쌍의 커플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나는 절로'에서 결혼한 커플의 아기가 처음 태어나기도 했다.

이번 행사가 열리는 한국문화연수원은 태화산 자락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매년 5만명 이상이 찾고 있다. 참가자들은 자연 속에서 힐링과 명상을 경험하며 일상의 번잡함을 내려놓고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대표이사 도륜 스님은 "추석을 앞두고 자연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참가자들이 일상의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서로를 천천히 알아가며, 좋은 인연을 맺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02-6334-2217 이현희 기자

사노위, 폭염 속 숨진 이주노동자 추모

8월 12일, 여주 사고 현장 찾아
"이주노동 정책 근본 전환 필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가 8월 12일 여주시에서 폭염 속 밭일을 하다 숨진 이주노동자의 넋을 기리고 안정적인 노동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사노위에 따르면 고인은 4남매를 둔 라오스 국적 여성으로, 계절근로자(E-8) 비자로 8월 5일 입국했다. 고인은 입국 바로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가남읍 오산리 밭에 투입돼 단호박 파종과 흙 덮기 등의 작업을 하던 중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휴식을 취하던 중 자리에서 사라졌다가, 8월 7일 저녁 무렵 밭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당일 여주 지역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됐으며, 비닐 작업 특성상 지열과 복사열을 고려한 체감온도는 45도 이상에 달한 것으로 사노위는 파악했다.

사노위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비롯된 이번 사고를 충분히 예방하고 예측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폭염 속 휴식 기준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은 점도 짚었다. 사노위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체감 온도 33도 이상 작업장에서는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며 "고인이 실종된 이후에도 함께 일했던 이주노동자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밭일을 멈추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여주시의 관리·감독 체계가 미흡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사노위에 따르면 여주시는 라오스 정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 상·하반기 1900여 명의 계절노동자를 유치했지만, 이를 관리하는 여주시청 직원은 단 4명에 불과하다.

이날 사노위 스님들은 고인이 일했던 밭과 머물렀던 숙소, 시신이 안치된 장례식장을 차례로 찾아 향을 사르고 염불기도를 올리며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사진〉

사노위는 "정부는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관계자를 엄정 처벌하고, 위험의 외주화가 반복되는 현실을 막을 수 있는 이주노동 정책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희 기자